

삼성SDI, 2차전지 효자노릇 “톡톡”

3/4분기 영업이익 82% 증가 881억원 ... PDP·CRT 영업실적 모두 호조

삼성SDI가 주력인 2차전지 판매 호조에 힘입어 3/4분기에도 양호한 영업실적을 기록했다.

삼성SDI는 3/4분기에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1조3474억원, 영업이익 881억원, 순이익 870억원의 영업실적을 올렸다고 10월20일 발표했다.

2차전지와 PDP(Plasma Display Panel), CRT(브라운관) 사업 등 전 분야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매출은 전 기대비 13.5%, 영업이익은 82%, 순이익은 50% 늘었다.

주력 사업인 전지사업은 15% 증가한 5740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분기 최대 판매기록을 갈아치웠다.

고부가가치제품인 대면적 폴리머전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수요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.

4/4분기에도 윈도우 7 출시에 따른 PC 교체 수요와 노트북 수요 증가로 2차전지 수요가 12%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여 호조가 이어질 전망이다.

PDP 사업은 판매량이 30% 가량 늘어난 130만대, 매출액은 5450억원으로 9% 증가했다.

4/4분기 성수기에 대비한 제품 출하가 늘어나면서 전체 설비 가동률은 3/4분기에 100%를 기록했기 때문이다.

삼성SDI는 4/4분기에도 수요가 13% 증가한 450만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신제품 출시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고부가가치제품인 50인치 이상 풀HD 제품의 판매비중을 높일 계획이다.

CRT 판매량도 41% 증가한 480만대, 매출액은 32.4% 늘어 192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특히, 빅슬림 제품은 63% 늘어난 230만대가 판매됐다.

삼성SDI는 4/4분기에 14인치 제품을 앞세워 빅슬림 판매비중을 62%로 높이는 한편, 원가 절감형 신제품인 21인치 UXF도 출시할 예정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10/20>